



이집트 나일 강 주변 스케치

수천 년간 술한 제국의 흥망성쇠를 목도한 나일 강은 많은 유적지로 여전히 사람들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 그뿐일까. 나일 강은 이집트의 젖줄로 척박한 사막에서도 생명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를 통해 나일 강을 따라 남쪽으로 가다 보면 현대와 고대의 문명을 모두 엿볼 수 있다. 글 세루샤 고벤더

RIVER OF WONDERS

For millennia, the Nile has witnessed the rise and fall of empires and the construction of monuments that still captivate the imagination today. The river is Egypt's lifeblood, creating a vital band of green through barren sands. It traverses the modern and the ancient, and both at the same time as it winds through Cairo. By Serusha Govender

© Michele Falzone / Getty Images



거대한 피라미드

카이로의 번잡함은 기자 인근까지 이어진다. 웅장한 규모를 자랑하는 기자 피라미드 중 가장 오래되고 큰 '대피라미드'는 이집트 제4왕조 당시의 강력한 통치자, 쿠푸 왕의 무덤이다. 탐험가들은 수백 년에 걸쳐 피라미드 내 밀실을 찾았고, 그 덕에 오늘날에는 통로를 따라 대회랑이 있는 피라미드의 중심부에 닿을 수 있다.

THE GREAT PYRAMID

Bustling Cairo pushes right up to the doorstep of Giza and its three pyramids. The oldest and grandest of these is the Great Pyramid, which was built as a tomb for Khufu, the imposing pharaoh who ruled Egypt during the Fourth Dynasty. Explorers have searched for undiscovered chambers in the pyramid for hundreds of years, and today they brave the heat and darkness to creep through a low passageway into its center, where they emerge in the magnificent Grand Gallery.



© George Steinmetz / Getty Images

움직이는 사원

로마 식민 지배 당시 이집트의 국교가 기독교로 정해진 후에도 일부 비기독교 신전은 파괴를 면했는데, 필레 섬 중앙에 있던 이시스 신전 역시 그중 하나다. 그러나 이시스 여신조차도 아스완 하이 댐 건설로 인한 날이 강의 수위 상승을 막을 수는 없었다. 유네스코 주도하에 사람들은 수장될 위기에 처한 신전의 돌을 하나하나 떼어 인근 아질키아 섬으로 옮기고 징장 8년여에 걸쳐 이 고대 신전을 복원했다. 오늘날 아질키아 섬은 종종 필레 섬이라 불린다.

THE MOVING TEMPLE

One of the last pagan temples permitted to operate after Christianity swept through Egypt, the Temple of Isis once stood at the center of Philae Island. But even the goddess could not stop the rising waters of the Nile. When construction of the Aswan High Dam threatened to submerge the dusk-colored Philae, the temple was moved, stone by stone, and reassembled over eight years on neighboring Agilkia Island, now often called Philae as well.



영광스러운 승리

람세스 2세는 자신의 기념물을 이집트 사상 전무후무할 정도로 많이, 이집트 구석구석에 세웠다. 그중 하나인 아부심벨 대신전은 절벽 면에 바로 조각해 지은 건축물로, 신전의 문은 네 개의 거대 석상이 지키고 서 있고, 입구를 통과해 대열주실에 들어서면 카데시 전투에서 히타이트족을 물리친 왕의 업적을 기리는 삽화가 사방에 장식돼 있다. 여울 주는 모습, 전쟁 회의, 대전차 전투 등을 묘사한 그림 속 주인공은 바로 람세스 자신이다.

VICTORY AND SPLENDOR

Known for his engineering prowess, Ramesses II had his Great Temple at Abu Simbel carved directly into a cliff. The temple is guarded by four colossal stone effigies, but visitors who make it past them and enter the Hypostyle Hall will find an interior that is decorated with extensive artwork telling of the pharaoh's victory over the Hittites at the Battle of Kadesh. Images depict horses being fed, a war council and the chariot battle, with Ramesses himself taking a leading role.



신성한 장소

카르나크 신전은 테베의 보석과도 같은 곳이었다. 오늘날 룩소르에 해당하는 테베는 기원전 1550~1077년경 신왕국 시대 당시 이집트에서 가장 부유하고 번창한 도시였다. 시원과 기둥 곳곳에 화려했던 옛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상형문자가 새겨진 기둥에 햇살이 비치면 기묘한 기운이 퍼지면서 마치 전성기 시절의 카르나크 신전이 되살아난 듯하다. 이집트 역사상 여성 통치자로는 최장기간 집권한 하트셉수트 여왕을 기리는 화강암 오벨리스크도 이곳에 자리 잡고 있다.

SACRED PLACES

Karnak was the jewel of ancient Thebes (now Luxor), a highlight in what was already Egypt's wealthiest and grandest capital during the New Kingdom (c1550-c1077BC). While a shadow of its former glory, it remains breathtaking — a mix of crumbling temples and eerily beautiful sun-dappled columns etched with hieroglyphs that recall Karnak in its heyday. Here, visitors will also see the granite obelisk of Queen Hatshepsut, Egypt's longest reigning female pharaoh.



파라오의 역작

나일 강 서안의 라메세움 신전. 고대 이집트 왕 중 가장 뛰어난 건축가로 통했던 람세스 2세가 이집트 곳곳에 세웠던 건축물 중 하나다. 그가 직접 설계한 자신의 장례전은 일생일대의 대작이라 불렸으나 그 위용은 세월을 이기지 못했다. 이제 폐허가 된 사원 일부가 여기저기 훑어져 있을 뿐. 영국 시인 셀리의 시 '오지만디아스'의 소재가 된 그의 석상 역시 사막의 모래에 서서히 스러져갈 끝이다.

TEMPLE OF THE ENGINEER

West of the Nile stand the remnants of the Ramesseum. Ramesses II was ancient Egypt's most celebrated builder. His own mortuary temple here was to be his masterpiece. Its grandeur didn't last. The ruins of the complex are scattered everywhere, and the pharaoh's stone statue, the inspiration for Shelley's poem *Ozymandias*, lies in rubble.